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비혼의 증가와 '다른' 가족정책의 필요성

최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 1인 가구의 증가와 '비혼'¹⁾

가. 가족을 대신하는 복지수단이 강화되고 있는가?

한국 사회는 가족주의가 강한 사회로 알려져 있다. 한국인들은 개인보다 가족이 우선한다는 의식이 강하고,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범위도 부부의 원가족 부모와 형제자매까지 넓게 확대되어 있었다. 넓고 강한 가족 연대망은 유독 한국인들이 친족 간의 정서적 유대가 강해서라기보다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관계가 여전히 가족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1990년대 이래로 가족의 범위가 축소되고 가족의식에서도 개인주의와 핵가족화가 진전되어 왔지만, 가족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의미있는 관계의 발전이 두드러지지는 않는다. 한국의 강한 가족주의의 배경으로 강조되었던 공적 복지의 저발전은

2000년대 이후 노후소득보장제도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의 도입과 실행으로 변화의 전기를 맞았지만, 빈곤과 돌봄의 공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출산과 양육, 주거, 의료, 교육 등에서 개인의 시장적 능력과 가족 간의 연대 이외의 믿을 만한 복지 수단이 보편적으로 확대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나. 가구의 규모 축소와 1인 가구 증가

이처럼 가족의 우선성이 강조될 수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30년 동안 한국 가족은 외형적으로 계속해서 축소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1인가구의 증가와 그것과 증첩되어 있는 혼인상태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형적인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축소되었다.

1) 통상적으로 '비혼'은 초혼 경험이 없는 미혼과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이 글에서는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상태라는 의미로서 인구통계에 서 이혼, 사별, 미혼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 수는 1990년 3.77명에서 2020년 2.40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9.0%에서 2020년 30.3%로 증가했다. 4인 가구와 5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1990년 58.1%에서 2020년 20.7%로 대폭 감소했다. 가구원 수 감소의 한 이유 중 하나인 자녀수의 감소 및 3세대 가구의 감소 등은 가족이 현대화되는 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급속한 1인 가구의 증가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 1인 가구 증가와 ‘비혼’의 증가

1인 가구의 증가는 기대여명의 상승에 따라 노년기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혼인과 출산의 감소, 혼인연령의 상승, 이혼·별거 등에 따른 증가도 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황정미 외, 2021; 이원진 외, 2021). 1인 가구는 우선 고령자의 일반적인 거주형태로 알려져 있다. 고령자들이 혼자 사는 비율이 높은 것은 자녀의 독립 후 부부만이 남아 있다가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 1인 가구로 전환하는 생애과정의 결과이다. 〈표 2〉에서 65세 이상 1인 가구의 80.5%가 사별이고, 이혼과 미혼이

각각 10.09%, 2.87%를 차지한다. 이는 65세 이상 다인 가구 가구원의 76.85%가 배우자가 있는 것과 대비된다. 1인 가구는 그 외 연령집단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혼인상태는 고령자와 차이가 있다. 19~34세 1인가구의 96.11%가 미혼이며, 35~49세는 미혼이 64.2%이고 이혼이 18.7%로 나타나 이혼으로 인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다. 50~64세의 1인 가구 혼인상태는 이혼의 비중이 36.26%로 가장 높으며, 사별과 미혼, 그리고 유배우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이는 다인가구의 유배우 비중이 88.16%인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이처럼 연령집단에 따라 1인 가구 혼인상태의 내적 구성은 달라지지만,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는 유배우 비율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배우자가 없는 ‘비혼’ 상태(미혼, 사별, 이혼)는 1인 가구의 일반적인 특징인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 산다는 것이 반드시 가족이 없다거나 부양과 돌봄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친밀한 사람들이 서로 연대하고 생활의 위험을 공유하기 위한 1차적 조건이 주거를 공유하는 데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1인 가구의 증가는 사회적 고립과 돌봄의 공백, 빈곤 등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1〉 평균 가구원수 및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변화 추이(1990~2020)

(단위: 명, %)

구분	평균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계
1990	3.77	9.0	13.8	19.1	29.5	28.6	100.0
2000	3.12	15.5	19.1	20.9	31.1	13.4	100.0
2010	2.69	23.9	24.6	21.3	22.5	7.7	100.0
2020	2.40	30.3	28.0	21.0	15.8	4.9	100.0

자료: 박종서 외(2020), 한국 가족의 변동 특성과 정책적 함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2〉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연령집단별 혼인상태 분포(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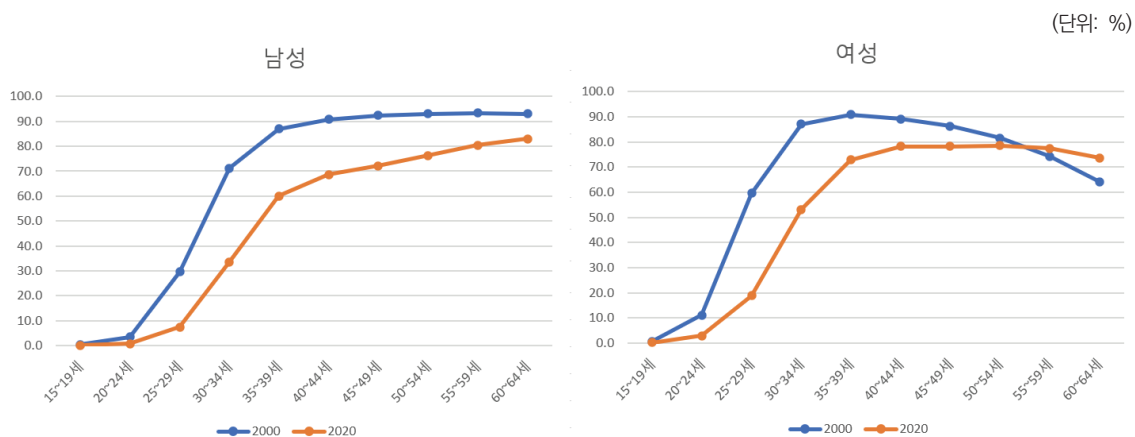
		1인 가구	다인 가구
19~34세	미혼	96.11	68.56
	유배우	2.95	30.83
	사별	0.02	0.04
	이혼	0.92	0.56
35~49세	미혼	64.20	10.46
	유배우	16.53	83.71
	사별	1.40	0.82
	이혼	17.87	5.01
50~64세	미혼	18.70	1.77
	유배우	22.75	88.16
	사별	22.29	4.28
	이혼	36.26	5.79
65세 이상	미혼	2.87	0.31
	유배우	6.54	76.85
	사별	80.50	21.13
	이혼	10.09	1.71

자료: 이원진 외(2021), 1인가구 사회보장 욕구 및 수급현황 분석.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0 〈표 2-9〉의 일부.

1인 가구의 증가와 중첩되어 있으면서, 정상가족의 축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보다 이혼,

비혼, 만혼 등 혼인 행동의 변화이다. 성인이 되자마자 결혼하고 결혼을 평생토록 지속하는 일은 더 이상 보편적인 생애 형태가 아니다. 이는 모든 연령구간에서 유배우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크게 축소된 것에서 잘 드러난다(그림 1 참조). 2000년과 2020년 사이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중은 대부분의 연령구간에서 크게 감소했다. 유배우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집단인 40~44세에서 남성의 유배우 비율은 2000년 90.9%에서 2020년 68.9%로 무려 22.0%p가 감소했으며, 여성의 유배우 비율은 2000년 89.1%에서 2020년 78.2%로 10.9%p가 감소했다. 만혼, 미혼, 이혼의 증가로 인해 15세 이상 64세 미만 비노인 성인인구의 유배우율은 크게 감소한 것이다.

중장년층의 유배우율 감소는 아동·청소년 포함가구의 가구구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생애주기의 특성상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동거하면서 부양과 보호를 받을 것이라 기대된다. 실제로 2020년 15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76.6%가 부모와 함께 사는 2세대 가



자료: 통계청(2000, 2020), 인구총조사, 연령별/성별/혼인상태별 인구(15세이상, 내국인)-시군구, 국가통계포털(인출일: 2022. 11. 30).
주: 위 수치는 일반가구원만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임.

〈그림 1〉 성, 연령집단별 유배우 비율의 변화(2000, 2020)

〈표 3〉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연령집단별 가구형태(2020)

(단위: %)

	1세대			2세대			3세대 이상	1인 가구	비친족가구
	계	부모	한부모	조부모	기타				
15세 미만	0.1	89.7	76.6	10.4	0.8	1.9	10.1	0.0	0.1
15~19세	0.8	86.3	66.2	16.7	0.9	2.5	9.1	3.4	0.3
20~24세	3.3	70.4	49.3	16.9	1.1	3.1	6.8	17.6	1.8

자료: 통계청(2020), 인구총조사,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인구, 국가통계포털(인출일: 2022. 11. 30).

주: 위 수치는 일반가구원만을 대상으로 측정한 것임.

족에 속해 있었다. 조부모와 부모가 모두 포함된 경우도 10.1%를 차지한다. 그러나 부모 동거 2세대 가구의 비중은 15~19세의 66.2%, 20~24세의 49.3%로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이는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에 진학과 취업으로 인해 부모집을 떠남에 따라 2세대 또는 3세대 가구의 비중이 감소하게 된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일한 2세대 가구 내에서 한부모 동거의 비중이 15~19세의 16.7%, 20~24세의 16.9%로 나타나는 것은, 부모 세대의 혼인상태 변화가 주로 10대 중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청소년의 가족생활에서도 '외형적 정상가족'의 비중은 일반적이지 않다.²⁾

2. 비혼 증가 경향에 대한 몇 가지 규정과 가족정책

앞서 살펴봤듯이, 지난 20~30년간 이혼, 비혼, 만혼, 사별 등 결혼을 둘러싼 인구학적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유배우 인구가 감소했으며, 1인 가구가 늘어났다. 이는 결혼제도에 속하지 않은 성인 인구의 비중과 규모가 유례없이 늘어났음

을 의미하며, 이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양적 규모의 변화는 비혼이 단지 인구통계적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 중 하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횡단면적으로 보면, 모든 연령집단에서 결혼여부에 따라, 배우자 유무에 따라,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으며, 종단적으로 보자면, 결혼과 비혼이 개인의 생애 시간 속에서 번갈아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태라는 것을 보여준다(이재경, 2015).

그동안 가족해체(가족쇠퇴론), 인구 위기, 그리고 가족 다양성 등 비혼의 성격을 선연적으로 규정하려는 시도들은 계속 이어져 왔다. 한편에서는 가족형성과 가족유지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진 것을 주요 원인으로 간주해왔다. 가족은 불안정화되고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 결과, 비혼의 증가 경향 역시 경제적 불안정성 심화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이해된 것이다. 이러한 진단은 소득기준에 따라 선별된 위기가족, 취약가족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정책의 발전을 낳았다.

이와 달리 가족은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화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이 시각은 가족해체 또는

2) 이 수치는 2세대 한부모가족 수치만을 나타낸 것이다. 한부모가족 중 조부모와 동거하는 경우는 3세대 이상 가족에 포함된다.

쇠퇴론과 달리, 가족생활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변화의 원인보다는 변화의 결과에 주목하며, 다양화되고 있는 가족과 개인의 삶을 차별 없이 지원함으로써 친밀성과 돌봄 등 가족에게 기대되는 기능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가족 다양성을 강조하는 시각은 위기나 취약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차별과 배제를 강조한다. 그러나 한부모 가족, 청소년 부모, 비혼동거 가족, 1인 가구 등과 같이 차별의 사례에만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가족의 다양화를 지향해 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3. 비혼 생활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접근을 위해

이러한 맥락에서, 제도적 결혼생활 내부에서만 실행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던 친밀성, 돌봄, 생물학적/사회적 재생산이 결혼제도 외부에서는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가를 다양한 맥락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혼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돌봄과 안전, 사회보장의 욕구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가족정책은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 가라는 질문도 요청되고 있다.

그동안 비혼의 사회적 의미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대안적 파트너십(비혼동거)이나 비혼 출산 등으로부터 시작해서, 친족관계나 사회적 관계망 등에 대한 연구들도 이루어져 왔다. 비혼동거와 비혼출산은 모두 인구의 대략 2~3% 내외

에 불과한 소수의 경험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 또한 비혼자들은 '혼자사는 사람'이라는 인식과는 달리, 특히 우리나라 비혼인구는 30대, 40대에도 약 50% 정도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관찰결과는 우리 사회의 결혼행동 특성이 서구사회와는 달리, 제도적 결혼을 대체하는 생활형태의 발전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며, 여전히 결혼에 대한 의존성과 기대가 높은 근거로 해석되기도 했다.

물론 최근 들어 각종 사회조사에서 비혼동거나 비혼출산에 대한 반대의견이 감소하고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사실에만 의존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비혼동거와 비혼출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서로 이질적인 비혼자들이 대안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오직 이성애에 기반을 둔 동거나 출산이라고 전제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파트너십과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비혼과 1인 가구의 밀접한 관련성, 비혼동거와 비혼출산의 매우 낮은 비중 등은 단지 한국 사회에서 비혼이 단지 '혼자'로 살기를 위한 데 따른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오히려 결혼 이외의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자녀를 낳아 기르며 돌봄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할 자원이 부족한 데 따른 결과일 수 있다. 오늘날 결혼과 출산이 지연되고 사회체증과 젠더에 따라 차별적으로 실천되는 양상을 고려하면, 법·제도적인 승인만으로 '다양한' 관계가 쉽게 열리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보편적인 사회적

3)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 응답자의 혼인상태 문항에 '비혼동거'를 포함하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조사인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에 따르면, 19~49세 응답자 중 동거가구(사실혼가구 및 단순동거가구)에 속한 비중은 2.9%로 집계되었다(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외, 2021, p.94). 2020년 비혼출산비율은 2.5%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OECD 평균 41.9%와 큰 차이가 있다(OECD, 2022).

욕구가 오직 법적 결혼을 통해서만 충족되고 실천되도록 만드는 것은, 결혼의 위기와 가족의 축소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관계의 성격과 강도가 상이한 다양한 형태의 친밀한 가족관계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비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가족의 제도적 외연을 넓히고 새로운 가족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 박종서·최선영·김유경 외(2020). 한국 가족의 변동 특성과 정책적 함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종서, 임지영, 김은정, 변수정, 이소영, 장인수, 조성호, 최선영, 이해정, 송지은(2021). 2021년 가족과 출산조사-(구)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경(2015). 가부장제 이후의 한국 가족: 정상성에서 유연성으로. 한국문화연구, 283-310.
- 이원진, 김현경, 오욱찬, 함선유, 한겨레(2021). 1인가구 사회보장 욕구 및 수급현황 분석,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2000, 2020). 인구총조사. 연령별/성별/혼인상태별 인구(15세이상,내국인)-시군구, 국가통계포털 검색일 2022. 11. 30.
- 황정미, 김수정, 변수정, 이순미(2020). “베이비붐 세대 1인가구를 고려한 가족서비스 전달체계 운영모형 연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OECD(2022). Family Database. OECD.